

“나의 소원은 유족 되는 것”...통곡과 눈물로 버틴 365일

팽목항 못 떠나는 실종자 가족 권오복씨의 1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위로와 성원이 큰 힘”

단원과 2학년 조은화·허다운양, 남현철·박영인군, 단원고 양승진·고창석 선생, 일반인 탑승자 권재근씨 아들 혁규군, 이영숙씨.

세월호가 진도 팽목수로에서 속절없이 침몰한지 꼬박 1년이 됐지만 배 안에는 지금도 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다. 가리앉은 세월호와 가장 가까운 항구, 팽목항에는 여전히 실종자들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소원은 “유족이 되는 것”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원을 가진 사람들. 가족을 품에 안지 못한 좌절감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온 그들이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을 꼭 찾아야 한다는 절실함과 애달픈 가족애였고,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보내온 정성과 배려 때문이었다.

◇눈물로 버티는 실종자 가족들의 1년=실종자 가족 권오복(61)씨는 15일로 팽목항 방파제 옆 컨테이너에 머무른 지 1년이 됐다. 그는 동생과 조카를 기다리고 있다. 동생 가족은 제주도에 구입해둔 갑곶농장으로 온 가족이 옮겨가기 위해 지난해 4월 15일 제주도 행 여객선 세월호에 올랐다.

이튿날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배에서는 권씨의 조카 지연(6)양만 무사히 구조됐다. 지연양의 어머니는 주검이 돼 돌아왔고, 동생 재근씨와 조카 혁규군은 여전히 가리앉은 세월호 안에 남겨져 있다.

권씨를 제외한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선체 수색이 중단되면서 모두 팽목항을 떠났다. 하지만 얼마 못가서 가족들은 다시 팽목항으로 되돌아왔다. 세월호에 남은 가족들이 생각날 때면 그들은 실종자들이 잠들어있는 팽

골수로와 가장 가까운 팽목항을 찾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실종자 가족의 눈물 닦아준 사람들=지난 1년간 팽목항에 머무르고 있는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준 것은 정부의 보상 약속이 아니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하루하루 버티게 하는 힘이 됐다. 3월 25일 제주에 사는 김성규님 한라봉 2박스, 26일 진도 주민 장진희님 미역, 27일 함안에서 보내 온 한라봉 1박스, 삼아재 1박스, 28일에는 전주에 사는 송봉주씨가 오렌지를, 무안에 사는 황선숙씨가 된장과 고추장, 정국장을 보내왔다. 전국 곳곳에서 지난 1년간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을 위해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가족식당’으로 음식과 생필품을 보내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방문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불교재단 소속 1000여 명의 스님과 신자들이 와서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지냈다. 천주교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팽목항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를 올리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천주교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가, 9일에는 의정부교구 신부와 신도들이 찾아와 위로했다.

권오복씨는 “지난 1년을 팽목항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실함과 이름모를 사람들의 끝없는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어서 빨리 차가운 물에서 어린 조카와 동생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5일 진도군 조도면 팽목항 방파제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픔 잊지 마세요”...가만가만 다가와 달아준 리본

세월호 현장 누비며 희생자 넋 위로...시집 ‘노란리본’ 펴낸 정의행 시인

“애들이 어서 올라와! 끝까지 기다릴 게/ 속울음 삼키며 글을 적습니다/ 무심한 파도가 밀려오는 팽목항에서/ 아직도 바다 속 울고 있을 닢들에게/ 노란 편지를 바람에 띄웁니다” (‘엄마손’ 중에서)

‘세월호’ 1주기가 돌아왔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지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9명의 실종자는 여태 소식이 없다. 팽골수도 깊은 물속에 처박힌 채 그들의 흔백은 차가운 심해를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스러져 간 학생들의 넋은 누가 달래야 하는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도의 정체’는 또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현장을 누비며 시를 쓴 시인이었다. 순천 출신 평화운동가 정의행(58·호남평화인권사랑방 의장)이 그 주인공. 그가 이번에 펴낸 ‘노란리본’(문학들)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현장을 토대로 쓴 시들이 수록돼 있다.

“애들이 어서 올라와! 끝까지 기다릴

게”라는 표현에서 보듯 저자의 눈은 진도 팽목항, 광주 충장로 우다방, 마을 촛불 마당 등 현장에 닿아 있다. 그곳에서 그는 시를 낭송하며 죽어간 닢들을 위로했다. 세월호 이야기 그만하라는 이들을 향해서 실제적 진실 규명을 외쳤다.

정 시인은 돈과 권력에 무감히 꺾여버린 꽃들에게 한없이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잊지 않고 행동하리라”는 다짐으로 시를 쓴 이유다.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은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이란단다.

김준태 시인은 ‘추천의 글’에서 “정의행은 세월호가 탄생시킨 노래꾼으로 가만가만 다가와 리본을 달아준다”며 “아픔도 잊지 않게 어루만지려는지 정직한 시로 아름다운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정 시인은 온몸으로 ‘세월호’에 매달리는 것은 지나온 삶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 그는 5·18구속부상자회 회원이다. 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무를 하던 그는 공수대원들이 무자비하게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혈기왕성했던 그는 앞뒤 재지 않

고 시위대에 가세한다. 그 결과, 그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모진 고문을 당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책임지는 자는 없고 ‘돈’을 섬기는 대가로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는지, 진실 규명 의지는 없이 보상금 타령으로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

그는 모두가 잊지 않고 뜻을 모으면 진실은 밝혀진다고 확신한다. ‘진실과 진리는 추구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때 승려생활을 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했던 적이 있다. 197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양주 봉정사로 출가를 감행했다. 유신 치하 억압의 분위기와 입시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번 시집이 세월호를 중심으로 진리와 진실 찾기는 연장선에 닿아 있는 연유



시집 ‘노란 리본’과 정의행 시인.

다. 정 시인은 비단 글쓰기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세월호 3년상 광주시민상추모임과 희생자 가족 지원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의행’, 아마도 자신의 이름처럼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게 그의 운명인 듯하다.

“돈보다 생명을 위하고, 이윤보다 진실을 따르면 좋겠다. 또한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홉 사람을 되찾고 진실을 밝혀내면 세월호도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차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을 입법예고했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시행령 논란’을 놓고 박 대통령이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것은 유족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시행령을 부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질문이 있는 배움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창사 63주년

다른 왜 자꾸 저를 따라오나요?

질문이 있는 교실 Engaging Classrooms
행복한 학교 Joyful Schools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